

[찬양과 큐티 6] “찬양하라 내 영혼아”

유지연 집사 / 1999 / 페이지 수: 1

“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.”

이 찬양은 다윗의 시 “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(시 103:1).”를 노래한 것이다.

우리가 알고 있듯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하여(about)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, 하나님께(to)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찬양이 아니다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듯이(잠 1:7,9:10)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.

다윗은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말한다.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그 이름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다.

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르시되 “네 조상의 하나님(엘로 힘)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모세가 또 다시 물었을 때 “스스로 있는 자(I am who I am)”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다(출 3:14~15).

다윗이 1절에서 찬양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, 역사 속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고 계신 자,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건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자, 스스로 있는 자, 바로 그 ‘여호와’인 것이다.

그래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“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”, 즉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(세포까지도) 다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하는 것이다.

나는 입술로만 찬양하는가,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찬양하는가? 스스로 있는 자-항상 살아 계시고, 유일하게 살아계시고, 스스로 존재하시며, 자신 외에는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족하신 분-여호와 그 이름을 송축하라!

<유지연 집사 / 헛서뮤직 대표>

* 출처 : QT신문